

# 포항공대 광양캠퍼스 유치 차질 창의예술고 내년 개교 준비 박차

## 광양시 교육 공약 추진상황 보니

장난감도서관 추가 설치  
어린이보육재단 운영 등 완료  
한려·광양보건대 정상화 난항  
공약 변경 여부 검토 지적도

‘포항공대(POSTEC) 광양캠퍼스 유치, 광양지역 대학교 정상화, 창의예술고 설립...’

정현복 광양시장이 내걸었던 대표적 교육 공약들이다. 민선 6기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지역 인재 양성을 위한 핵심 현안들의 진행 상황에도 관심이 쏠린다.

광양시는 최근 개최된 ‘2018 주요업무 시행계획’에서도 이들 공약 사항에 대한 추진상황과 계획 등을 점검했다.

◇포항공대 광양캠퍼스 유치? =정 시장이 내걸었던 교육 공약 중 눈길을 끄는 게 ‘포항공대 광양캠퍼스 유치’다. 세계적 수준의 이공계 선도대학을 유치, 광양의 교육 경쟁력을 높이고 미래 신산업 창출을 통한 산업구조를 촉진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는 판단에서 추진됐다.

현재 포항공대 광양캠퍼스 유치 공약은 광양시의 6개 분야 140개 공약사항 중 ‘장기 추진사업’ 목록에 올라있다. 전망은 밝지 않다. 포스텍은 학교 팽창을 지양하는 상황으로 방문 자체 요청까지 했을 정도로 부정적이다. ‘포기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말이 나올까봐 광양시는 장기적 안목으로 접근하겠다는 전략을 세우고 ‘추진사업’에 올려놓았다. 시는 지난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5차례 포항공대를 찾았고 올해도 방문하는 등 지속적으로 면담하고 설득해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입장이다.

◇광양지역 대학교 정상화? =광양지역 대학교인 한려대와 광양보건대 정상화도 정 시장이 내건 교육분야 공약사항 중



광양시는 지난 9일부터 이틀간 시청 상황실에서 ‘2018년 주요업무 시행계획 보고회’를 열고 공약사항, 신규시책 등에 대한 추진 계획 등을 논의했다. <광양시 제공>

하나다. 이들 대학은 정부의 대학교개혁평가에서 하위등급을 받은 대학들로, 사학 소유주와 비호세력의 잘못으로 ‘부실대학’이라는 꼬리표를 떼지 못한 대학들이다.

정 시장은 그러나 ‘광양 지역 대학교 정상화 범시민대책협의회’를 발족, 5차례 회의를 개최하는가 하면, 정와대와 교육부 등에 재정지원과 국가장학금 제한 해제 등을 요청하는 건의문도 발송했다. 정부의 재정지원 제한 방침에도, 광양시의회를 통해 ‘지역대학 지원 조례’도 제정했다.

현재까지 대학 상황은 별반 달라진 게 없는데다, 일각에서는 납득할만한 학교 스스로의 개선 조치나 방안이 없는 상황에서 이들 대학에 대한 지원이 타당하느냐 비판도 제기되는 실정인 만큼 공약 변경 여부를 검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창의예술고 설립은? =창의예술고 건립사업은 ‘광양 국제고 유치’ 공약을 대신해 내걸었던 사업으로, 동부권 예술고 설립 계획이다.

광양시는 광양커뮤니티센터 3만5649㎡를 예술고 부지로 제공하는 등 320억을 들여 3학년(음악 2·미술과 1) 180명 규모의 예술고를 짓는다는 입장이다. 2018년 3월

개교를 목표로 했었다. 하지만 지난 2016년 4월 이뤄진 교육부 중앙투자심사는 ‘적정’ 결정을 받아 통과했지만 지난해 10월 행정자치부의 ‘지방 재정 중앙투자사업 심사’에서는 재검토 결정을 받았다.

이 때문에 애초 목표로 했던 2018년 3월 개교는 사실상 불건넌 상황으로, 광양시는 올 2월 중앙투자심사를 다시 받아 2019년 3월 개교를 목표로 추진한다는 구상이다. 이외 교육 공약으로 내걸었던 ▲용강·마동중 조기개교 ▲백운장학금 제도개선 ▲어린이보육재단 운영 ▲장난감도서관 추가 설치 등은 완료한 것으로 파악됐다.

광양시는 전체 공약사항(6개 분야 140개) 중 91건을 완료, 49건을 추진중으로 분류했다. 추진중인 사업 중 10개는 장기 과제, 나머지 39개 사업은 중·단기 과제로 분류해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광양시는 올해 인재 유출을 막고 지역 인재 양성을 위해 교육경비보조사업(10개 분야 59개 프로그램)에 64억8200만 원을 투입, 지원한다. 전년도(60억2900만 원)에 비해 4억5300만원 늘어난 규모다.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광양=김대수기자 kds@kwangju.co.kr

## ‘2018년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사업’ 신청 접수

광양시가 주민이 자발적으로 참여해 공동체 문화를 만들어가기 위한 ‘2018년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사업’을 추진키로 하고 신청을 받는다.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사업’은 주민 공동체를 회복하고 주민들이 스스로 지역

의 문제를 발굴하고 해소해 나가는 사업으로 4000만 원을 지원한다.

광양지역 주민 5인 이상으로 만들어진 모임이나 단체가 마을의 자원 발굴, 주민의 복지증진, 문화·예술 프로그램 운영,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사업 등을 신

청하면 된다. 오는 31일까지 시청 전략정책담당관실로 직접 방문해 신청서와 관련 서류들을 제출하면 된다. 사업별 지원비는 250만원 정도다.

한편, 광양시는 지난해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사업으로 28개 마을공동체에 1억7000만 원을 지원했다.

/광양=김대수기자 kds@kwangju.co.kr

## ‘구인·구직 만남의 날’ 행사...(주)동후 참여 15명 선발키로

광양시는 지난 10일 시청 재난안전상황실에서 ‘구인·구직 만남의 날’ 행사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일자리를 찾는 청년 구직자와 중소기업을 연결하기 위한 것으로, 광양제철소 내 후판조업 지원기업인 (주)동후가 참여했다.

동후는 천장크레인운전과 조업지원 15명을 선발키로 하고 행사 참석자들을 대상으로 면접을 진행했다. <사진> 최종 합격자들은 4개월의 수습 기간을 거친 후 정규직으로 채용될 예정이다.

광양시 일자리정책팀 관계자는 “기업에서는 현장에 필요한 직원을 충원하고, 구직자들은 취업할 수 있는 기회로 적극 활용하시기를 바란다”면서 “매월 한 차례 이상 ‘구인·구직 만남의 날’ 행사를



개최해 인력난 해소에 앞장설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광양시는 광양희망일자리센터

와 함께 매월 1회 이상 ‘구인·구직 만남의 날’ 행사를 개최하고 있다. /광양=김대수기자 kds@kwangju.co.kr

## 옥룡면 주민자치위 위원 19명 위촉식 갖고 본격 활동



광양시 제 1기 옥룡면 주민자치위원회는 지난 10일 옥룡면사무소 회의실에서 위촉식(사진)을 갖고 본격적 활동에 들어갔다.

옥룡면 주민자치위원회는 19명으로 구성되며 이날 회의에서 박재규 위원장, 리상재·박성애 부위원장, 서병국 간사

등을 선임하고 운영 계획 등을 논의했다.

박재규 위원장은 “주민들과 함께 생각하고 행동하면서 옥룡면 발전에 선도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광양=김대수기자 kds@kwangju.co.kr

## 카카오톡 활용 시정 홍보

### 광양시, 시민과 소통 강화



광양시가 카카오톡을 활용한 시정 홍보에 나섰다.

광양시는 카카오톡 ‘광양시청’ 계정을 지난 5일 개설하고 시정, 축제, 재난·안전 정보 등을 시민과 공유하며 소통을 강화키로 했다.

카카오톡은 블로그, 페이스북과는 달리, 1대 1 카톡방을 통한 다양한 정보 제공과 실시간 양방향 소통이 가능한 게 특징이다. 특히 폭설·폭염·지진 등 재난·재해가 발생할 경우 시민들에게 관련 정보와 행동요령을 빠르게 전파할 수 있는 게 장점이다. 시는 주 1회 이상 문화관광, 정책, 미담사례 등을 감성적인 사진과 동영상, 카드뉴스 형식으로 만들어 전달할 계획이다.

한편, 광양시는 뉴미디어를 통한 소통 강화를 위해 블로그, 트위터(팔로워 1만 7049명), 페이스북(구독자 2만 3830명), 카카오톡(구독자 5885명), 인스타그램(팔로워 2406명), 카카오톡 등을 운영 중이다. /광양=김대수기자 kds@kwangju.co.kr

## 보훈명예수당 10만원·사망위로금 30만원으로

### 광양시, 전남 최고 수준 인상

광양시는 올해부터 국가유공자 유족과 가족들에게 지급되는 보훈 및 참전명예수당을 기존 월 7만원에서 10만원, 사망위로금은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인상했다.

전남지역 지자체 중에서는 최고 수준으로, 신청일 현재 광양시에 1년 이상 주소 두고 거주하고 보훈명예수당은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다음 달, 참전명예수당

은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된다. 시는 앞서 지난해 ‘광양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및 ‘광양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를 개정, 인상 근거를 마련한 바 있다.

광양시 관계자는 “이달 기준 1100여 명에게 보훈 및 참전유공자 명예수당을 지급하고 있다”면서 “보훈단체에 대한 운영비도 인상, 단체 운영 활성화를 도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광양=김대수기자 kds@kwangju.co.kr

# 대산 인테리어 (사업부)

광주광역시 북구 증흥동 373-14  
광주역후문 증흥삼거리 부근

신축건물 설계시공 상가인테리어 조립식건물  
징크시공 케뮤시공 판넬시공 렉산시공 데크시공  
싱크대 샷시 실내인테리어 아파트인테리어

## 한샘가맹점 (싱크, 불박이, 욕실, 마루, 창호, 도어) 062-522-0482

**광주전남 기능장 호**

국무총리상 표창  
보건복지부 장관상 표창  
광주광역시 시장상 표창  
광주남구 청장상 표창

# 大산 프리모 남녀 가발

특수가발 별매 (윈터치) 테잎 x 핀 x  
이용기능장 원장 직접 시술 1만여명 내공  
매주화요일 휴무 (일요일 정상 영업)  
본점: 광주광역시 남구 주월동 라인가든 아파트 상가2층  
**062 673 5858(모발모발)**

H.M사  
등급제품 130만원 **59만원**